

동백꽃

山茶花



● 金裕贞 / 著 ● 叔赫律 / 编译

天真无邪的少男少女朦胧的情感故事。主人公是地主家少女及其他农家的少年。少女泼辣、精明，主动向少年表示好感，而少年因身份等原因并不能理解少女的初心。于是，少女就善意地戏弄、报复并不理解自己且不敢面对自己的少男，少女少女纯真的情感世界，呈现在旁观者（读者）眼前。

山茶花 동백꽃

B舍监与情书 B사감과 러브레터

厢房房客和妈妈 사랑손님과 어머니

青青的桦树 젊은 느티나무

韩国文学名著 韩汉对照系列丛书



责任编辑 张显吉 徐 佳

韩国文学名著
韩汉对照系列丛书

船歌
贫妻
山茶花
雷阵雨
无明
故乡

ISBN 978-7-5601-5011-6



9 787560 150116 >

定价:15.00元

韩国文学名著 韩汉对照系列丛书

山茶花

● 金裕贞 / 著 ● 叔赫律 / 编译



◎ 吉林出版集团 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山茶花/(韩)金裕贞著;权赫律编译. —长春:吉林大学出版社, 2009. 10

(韩国文学名著韩汉对照系列丛书)

ISBN 978-7-7-5601-5011-6

I. 山… II. ①金… ②权… III. ①朝鲜语—汉语—对照读物
②长篇小说—韩国—现代 IV. ①H559.4: 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190777号

韩国文学名著韩汉对照系列丛书

山茶花

- | | |
|---------|--|
| ◎作者 | (韩)金裕贞 |
| ◎编译 | 权赫律 |
| ◎责任编辑 | 张显吉 徐 佳 |
| ◎责任校对 | 张显吉 徐 佳 |
| ◎封面设计 | 张沐沉 |
| ◎版式设计 | 张沐沉 |
| ◎出版发行 | 吉林大学出版社 |
| ◎社址 | 长春市明德路421号 |
| ◎邮编 | 130021 |
| ◎发行部电话 | 0431-88499826 |
| ◎网址 | http://www.jlup.com.cn |
| ◎E-mail | jlup@mail.jlu.edu.cn |
| ◎印刷 | 长春市利源彩印有限公司 |

版权所有 翻印必究

150mm×230mm 16开 10.125印张 102千字

2010年1月第1版 2010年1月第1次印刷

ISBN 978-7-5601-5011-6

定价: 15.00元



차례 目录

B사감과 러브레터

B舍监与情书 1

사랑 손님과 어머니

厢房房客和妈妈 19

동백꽃

山茶花 79

젊은 느티나무

青青的榉树 101



B사감과 러브레터

B舍监与情书

玄镇健著·吴野迪译

C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B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소꾼으로 유명하다. 사십이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이 슬은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횡령 벗겨진 이마라든지, 술이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겨넘긴 머리꼬리가 뒷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뽕죽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치리 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 B여사가 질겁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으레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타령이 날아 들어 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신을 일일이 검토하는 터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B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 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까닭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

在C女校执教并兼任舍监一职的B女士是个性情凶悍的独身主义者，更以笃实的基督教徒而闻名。年近四十依旧形单影只，一张布满雀斑的脸，粗糙、枯瘦、泛着暗黄，不仅没有半点未婚女人应有的韵味，反倒还会使人联想起那发了霉的黄花鱼干。

光秃秃的前额上已然叠了好几道皱纹，稀疏的头发既绾不成结也盘不成髻，只好随便梳到脑后拢在一起，颇像那干瘪的羊粪蛋，衰老已经无可奈何地显露在她身上。她严厉而凶悍，当她紧闭双唇，老花镜的镜片后射出两道冰冷的窥视的目光时，总会令学生们不寒而栗。

这个B女士有些近似于恐慌般地憎恶所谓的情书。虽说女校的宿舍收到这样的来信也是常有的事，但不知是由于该校的名气大，还是漂亮的女生多，那满载着至死不渝类的爱情表白及誓言的信，每天都会有好几封。而寄给学生们的信件，都是要经过检查的，因此，像这样的情书自然都无一例外地落入了B女士的手中。读着这一封封写满甜言蜜语的信，她总是会禁不住激动，脸色一阵红一阵白，直至怒不可遏，持信的手不住地颤抖。

而对于收信的学生来讲，无疑就是一场灾



변이었다. 하학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리어 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썩근썩근하며 방안을 왔다갔다 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리면서도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닿을 만큼 바싹 다가 들어서서 딱 마주 선다. 웬 영문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겁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모기만한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

딱 무슨 뜻이 한 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교의를 우당통탕 당겨서 철썩 주저앉았다가 학생이 그 저 서 있는 걸 보면,

“장승이나?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뻑 지르는 법이었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새에 두고 마주 앉는다. 앉은 뒤에도,

‘네 죄상을 네가 알지!’하는 것처럼 아무 말없이 눈살로 쏘기만 하다가 한참 만에야 그 편지를 끄집어내어 학생의 코앞에 동태이를 치며,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고 문초를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쓰였는지라,

“저한테 온 것이야요.”

하고 대답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발신인이 누구인 것을 채쳐 묻는다.

그런 편지의 항용어로 발신인의 성명이 똑똑치 않기

难。一放学，那学生会立刻被叫到B女士办公室。B女士像是已愤怒到了极点，不停地踱来踱去并恶狠狠地盯着学生，似乎要一口吞掉对方一般。然后，她会一步一步地逼上前去，直至几乎快要贴到那学生的鼻尖。进来的学生茫然无措地看着老师，显出一副惊恐万状的神情，好一会才挤出蚊子般大小的声音，怯怯地问道：

“您找我吗？”

“没错，咋的！”

B女士狠狠地摔出这样一句后，咣当一声地拉过椅子，十分不满地一屁股坐下来。若是看到学生仍站在原地不动，定会继续吼道：

“你是木桩啊？还不过来坐下！”

就这样，师生面对面坐在一张小书桌的两侧。

B女士并不急于开口，只用眼睛逼视着对方，仿佛在说，“你干的好事，你自己清楚！”过了好一会才掏出一封信，猛地砸在学生的面前，开始质问：

“这是谁的？”

由于信封上赫然写着自己的名字，学生只好喃喃道：

“是寄给我的。”

这样一来，关于寄信人是谁的追问，便会咄咄逼人地接踵而至。

通常情况下，这种信的寄信人是不会署名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내대일 양이면,

“너한테 오는 것을 내가 모른단 말이나?”

하고, 불호령을 내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보라 하여 무심한 학생이 나즉나즉 하나마 꿈 같은 구절을 입술에 올리면, B여사의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소위인 것을 기어이 알려 한다. 기실 보도 듣도 못한 남성이 한 노릇이요,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하여도 곧이 듣지를 않는다. 바른 대로 아뢰어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는 등, 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할 리가 만무하다는 등, 필연 행실이 부정한 일이 있으리라는 등……

하다못해 어디서 한 번 만나기라도 하였을 테니 어찌 해서 남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느냐는 등, 자칫 잘못하여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에서 혹 보았는지 모른다고 졸리다 못해 주워댈 것 같으면 사내의 보는 눈이 어떻더냐, 표정이 어떻더냐, 무슨 말을 건네더냐, 미주알 고주알 캐고 파며 얼르고 볶아서 넉넉히 십 년 감수는 시킨다.

두 시간이 넘도록 문초를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이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가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피어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뉘지도 않은 방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 달라고 뒤썩고 곱썩는 법이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를 하든지 기어이 못

的。但是，如果学生说自己也不知情，B女士一定会大声呵斥：

“给你来的信，你会不知道是谁寄的？”

接下来，便会责令学生读信。然而，一旦学生如坐云雾般低声读出了信中甜蜜的内容，B女士却又会愈加愤怒起来，大有不追查到底绝不罢休之势。因此，即使学生一再表明自己与寄信人素未谋面，自己根本毫不知情，她也全然置若罔闻、不予理睬。她会强调，只有如实禀告才可以避免被开除。因为她认定，一个男人是绝不可能给一个素不相识的女人写信的，必然是有了某种不端的行为……

而若是那学生迫于无奈，随口说可能在学校举办的音乐会，或者学校的“募捐会”上见过面，那还会被追问诸如对方的眼神如何，表情怎样，都说了什么话之类的问题。反正，要应对打破砂锅问到底的B女士，至少要折寿十年。

两个多小时的责问之后，一定是一番苦口婆心的劝说。例如，绝不要相信男人，他们是专吃女人的魔鬼，什么恋爱是自由而神圣的说法统统是恶魔编造出来的谎言等等。说到激动处，她索性会跪在那没有擦过的地上做起祷告。她眼中含泪，唠唠叨叨，祈求上帝快来救救这些即将陷入恶魔诱惑中的迷途羔羊们。

她厌烦的第二件事情是男人造访宿舍，她会使出浑身解数，将他们拒之门外。即便是寄宿



B사감과 러브레터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학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쑤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휴학을 하였고 교장의 설유까지 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을 고치려 들지 않았다.

이 B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느니 보다 ‘발각되었다’는 것이 마땅할는지 모르리라. 왜 그런고 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점이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곤한 잠에 떨어졌을 제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낱말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루 밤이 아니고 이틀 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귀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에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러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이나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무를 깨웠다가 좀처럼 동무는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나 어림없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땀 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이때 공교롭게 한 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学生的父母、手足这样的至亲，只要是男人，她也总会以学校有规定或正在上课为由，将他们打发走。

对此，学生们曾集体罢课以示抗议，校长也曾找她谈过话。然而，她却似乎从未打算改变这种做法。

今年秋天，B舍监所管理的宿舍发生了件怪事。与其说“发生”，不如说“发现”更为贴切。因为，只有天才晓得这怪事究竟是从何时“开始”的。

那件事就是每到夜深人静，宿舍里的学生们都酣然入梦之际，会无端地传来咯咯的笑声和窃窃的私语声，而且还并非是偶然的一两晚。渐渐的，这声音便溜入了一些睡得不沉的学生们的耳中。有人认为这是似睡非睡之时，听到后山的枯叶在随风舞动、沙沙作响，或者是月色中大雁鸣叫着振翅飞过的声音。也有人猜测是否是鬼怪在作祟，然而又怕在叫醒室友后被嘲笑为少见多怪、疑神疑鬼。于是，索性认定夜深人静时远处的声音也会变得清晰，因此也许是学校附近有人在聊天，也许是其他寝室有人在说梦话，这样草草地安慰自己一番后，便再次翻身睡去。

但是，谜底终究有被揭开的时候。那是睡在同一寝室的三个女孩子，一个在起夜时听到了怪声后，摇醒了另外两个。

“快听，大半夜的这是什么声音啊？”



하고 첫째 처녀는 휘둥그레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띠운다.

“어제 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랐었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 한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많았자 열 여덟밖에 아니 되지만) 장난 잘 치고 짓궂은 짓 잘 하기로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윽히 귀를 기울이다가,

“딴은 수상한 걸, 나는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무얼, 잠 아니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에 그 괴상한 소리는 땡때굴 웃었다. 세 처녀는 귀를 소스라쳤다. 적적한 밤 가운데 다른 파동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마디를 곁에서나 나는 듯이 또렷또렷이 전해 주었다.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오! 태훈 씨! 그러면 작히 좋을까요.”

“경숙 씨가 좋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아,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제야 아셨습니까!”

정열에 뿜 사내의 목청이 분명하였다.

한동안 침묵……

“인제 고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아양떠는 여자 말씨.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한하겠습니다.”

第一个女孩，圆睁的眼中闪烁着一丝恐惧。

“昨晚我听到时也吓了一跳。该不会是闹鬼吧？”

第二个女孩，一边揉着惺忪的睡眼一边疑惑地说。第三个女孩，年纪比她的两位室友稍大一些（尽管如此，也不过才18岁），古灵精怪、十分调皮，以擅长惹是生非而出名。她似乎并不相信室友的话，专注地听了一会儿说道：

“是挺奇怪的，我好像什么时候也听过这声音，也许是那些睡不着的人在聊天吧。”

就在这时，又传来了一阵怪异的笑声。三个女孩不由得打了个寒战。清冷寂静的夜里，这诡异的声音划破仿佛已经凝固了的空气由远及近，就好像来自身旁一样清晰。

那是一个女人娇滴滴的声音。

“哎呦，泰勋！那该多好啊？”

“京淑，如果你愿意的话，那我自然是求之不得。啊，京淑，你这回明白我的一片痴心了吧。”

一个男人的声音，激情洋溢地回答着。

一阵沉寂……

“好啦，放手！这‘凯斯’，也太长了吧？别人看到了，咋办？”

女人撒娇地说。

“长吻不更好吗？这样吻着你，直到生命终结的那一刻，我也仍不会满足，仍会觉得太短暂而感到遗憾。”



사내의 피를 뿜는 듯한 이 말끝은 계집의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 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겨운 남녀의 허무러진 수작이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긴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으며 점점 호기심으로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 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곱돌던 사내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건잡다 못하여 밤이 이슬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 넘었는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여자 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 애인을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필육을 내리워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서 매달려 디롱디롱하면서 올라가는 정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 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삭거림에 찾아졌는지 모르리라……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눈부시게 세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몰스럽게 내어대는 모양.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주어요, 나를 구해주어요.”

사내의 애를 졸리는 간청.

“우리 구경 가 볼까.”